

# 한국 3개지역의 결혼, 결혼년령 및 출산력에 관한 연구

김 모 입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연구목적
제 3 장 연구방법
제 4 장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도
I. 자료의 신뢰도
II. 자료의 정확도
제 5 장 고찰 및 결론
제 6 장 참고문헌

## 제 1 장 서 론

개인이나, 가정,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리를 유지 보호 또는 조장함에 있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이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며,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조속히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었다. 많은 나라가 가족계획 사업을 이 해결책의 하나로 삼게 되었고, 그러한 나라중의 하나가 우리나라이다<sup>1</sup>.

우리나라는 오랜동안 농경체제의 국가였다는 것 외에 높은 출산력을 초래한 여러가지 여건을 지녀왔다. 그중 몇가지 사회관습에서 나온 여건을 예로 들어 본다면

첫째, 조혼이 관습이 되어왔고, 독신생활을 멸시하고 누구나 결혼할 것을 강력히 장려 실천해 왔다.

둘째, 대가족제도

셋째, 노령기 사회보장제도의 결여

넷째, 남존 여비

다섯째, 축첩제도

여섯째, 피임제의 결여 등

즉, 양으로 다산을 장려하던 정부정책, 음으로 다산할 수 밖에 없게 되었던 사회풍토와 풍습 및 가족제도가 오랜동안 높은 출산력을 도와 왔다고 하겠다.

이런 전통사회적 여건이 세계 제이차대전이 종말을 짓고 서구적인 문명에 접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농경체제가 차츰 산업경제화하고 따라서 도시화 함에 따라 위에 들었던 풍습 및 가족제도에 변천이 오고 다산을 장려하던 정부정책이 다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족계획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바꾸어 강력히 장려하기에 이르렀다.

풍습 및 가족제도의 변천을 관찰하면, 크게 주목되는 것은

첫째, 조혼 경향이 차츰 자취를 감추었고

둘째, 대가족제도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셋째, 여성교육 및 남녀평등이라는 풍조를 낳게 되었다고

넷째, 피임법의 출현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따라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다.

따라서 인구학적 고찰에 의하면 제이차 세계대전 전에 생령통계가 미비하나마 상당히 높은 출산력이었음을 알 수 있고,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한 추산치를 보면, 조출산율이 1925년과 1944년 사이에는 40~50사이이며, 1950년도 중엽으로부터 1960년도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출산율을 보이다가 1960년 이후 1970년에 이르기까지 극적인 저하를 가져왔다.<sup>2,3</sup> 즉 조출산력이 1960년도에는 43이던 것이 1966년도에는 33, 그리고 1970년도에는 29로 강하했고, 총출산력(T.F.R.)은 6.2(1960-61)에서 4.4(1970-71)로 되고 인구증가율 추정치는 2.9%(1960년도)에서 약 2.3%(1968년도) 그리고 2.0%(1970) 씘으로 저하되었음을 보이고 있다.<sup>4</sup>

인구증가를 좌우하는 요소를 일반적으로 셋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출산력, 사망률과 대외인구이동으로 우리나라 경우 국외로 나가는 인구이동이 1960년도에서 1970년도에 이르기까지 인구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한다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요인은 출산력과 사망력이 되겠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래 영유아 사망률 및 조사당량이 점차로 저하되는 형편이며 따라서 출산력의 저하 없이는 자연 인구증가율이 증가되었어야만 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자연증가율이 최근에 감소했음은 출산력의 저하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출산력 저하를 초래한 핵심적인 요인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우리네 관심의 표적이 되겠다. 이를 두고 학자간에는 의견이 구구하다.

전술한 고출산력조장 요소들이 저출산력을 돕는 요소로 변천함에 기인됨은 미루어 알 수 있으나 그중 핵심적 요인은 사회가도시화하고 산업화 함에 따라 사회구조가 저출산력을 가족계획사업 없이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가족계획 사업이 그 중심 역할을 했다는 학자도 있으며, 혹은 저출산력에 도움이 되는 일시적 인구 구성 구조나 결혼 연령의 증가에 있다고 역설하는 이도 있다<sup>5</sup>.

만혼을 Malthus도 인구증가 억제책으로 들었고<sup>6</sup> 아일랜드의 저출산력은 가족계획 사업 없이 만혼에 기인한 좋은 역사적 예증이 있으며<sup>7</sup> 오늘날에 와서도 인구증가 해결책의 하나로 만혼을 장려<sup>8</sup> 내지는 결혼 연령을 만혼경향으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구학자 내지는 실제 채택한 나라까지 있다.<sup>9 10 11</sup>

결혼연령이 인구증가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은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이다. 즉, 결혼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인 일생중 임신 가능한 기간이 줄어들뿐 아니라<sup>12</sup> 만혼을 한 부부에서 불임문제가 많고<sup>13</sup>, 영유아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만혼이 저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고, 또 여인이 30을 넘으면 차차로 임신가능 능력이 퇴색해 가는 생리학적인 근거로 보아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다<sup>14 15 16</sup>. 그뿐 아니라 결혼연령에 관계 없이 여인들이 똑 같은 수의 아기를 가져도 만혼은 세대간에 기간을 길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구 증가율에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결혼 연령은 법적 결혼연령을 달 함이 아니고, 여인이 실제 출산을 가능케 할 성 생활을 시작한 연령을 말하는 것이다. 단순한 법적 결혼연령만은 사회구조에 따라서 위에서도 말한 출산력에 미치는 결혼연령의 영향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출산력 저하를 두고 그 주요 원인을 말할 때 그 하나로 결혼연령의 상승을 이유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혼연령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되면 가족계획 사업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도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본 연구는 출산력 저하에 결혼연령과 가족계획 사업

이 미친 영향을 비교 검토함을 목적으로 하되 아울러 우리나라 장기 인구성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결혼의 태도 및 실제를 살펴보고 결혼연령의 변화와 결혼연령을 좌우하는 요인을 선택, 이들 요인과 결혼연령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Hajnal이 말하기를 장기 인구성장에 대한 옳은 판단을 하려면 결혼경향을 상세히 분석 연구하고 그리고 결혼마다 몇명의 자녀를 갖는지 그 경향을 연구하는 길 밖에 없다고 했다<sup>17</sup>.

본 연구는 결혼의 태도를 여러모로 검토하고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인을 개별 또는 종합 분석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도 처음 되는 일로 필자는 알고 있으며, 결혼연령, 가족계획 기타 여러가지 사회, 경제, 인구학적 요인들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총체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 영향을 비교 검토하는 연구로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안다.

## 제 2 장 연구목적

본 연구의 일반적 목적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장기인구성장 방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재료와 인구문제 해결에 보다 타당하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 실천함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섯가지의 특수목적들을 설정하였다.

1. 결혼과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와 실재를 파악한다
2. 결혼연령의 상관요인을 알아내고 각각 그 판지를 검토한다.
3. 결혼연령의 상관요인의 우열을 비교하고 판지요인 전체의 능력을 판단한다.
4. 출산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내고 각각 그 판지를 검토한다.
5. 출산력의 상관요인 중 결혼 연령과 가족계획 두 요인이 갖는 출산력과의 판지를 검토하고 그 우열을 평가한 다음 상관요인 전체의 능력을 검토한다

## 제 3 장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본 연구목적들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한 현장면접조사를 택하였다.

질문지는 여러번의 예비조사를 통해 다듬어서 어휘로 인한 혼란을 피하도록 하였으며 면접자의 의견과 예비조사 분석결과에 의하여 몇개의 항목은 정정 또는

삭제하였다.

완성된 질문지에 수록된 질문들은 아래 네가지 영역으로 묶어볼 수 있다.

1. 응답자의 배경
2. 결혼과 결혼년령
3. 출산
4. 가족계획

응답자의 배경은 인구 및 사회, 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응답자의 사회참여 및 문명이기 진척정도가 포함 되어 있고, 결혼과 결혼년령, 출산과 가족계획에 있어서는 지식, 태도, 실제에 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의 신뢰도를 위한 추후조사에서는 본 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의 65%만 무작위 추출하여 사용했다.

연구대상지역 선택은 우리나라 지역사회계층(즉 도시, 준도시, 농촌)을 대표한다는 지역을 하나씩 임의로 선택하여 지역특성에 따른 비교연구를 도모하였다.

선택된 지역은 도시를 대표하여 서울, 준도시를 대표하여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농촌지역으로는 안성군 고삼면의 각기 거주지역으로 정하였다. 비록 연구대상지역이 통계학적 의미로 임의 선택이 되었으나, 선택 과정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다.

1. 선택된 농촌 및 준도시 지역이 타 농촌 및 준도시 지역에 비해 특색하여 판이하게 다르지 않은 지역이며 도시는 대도시로 도시생활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다.
2. 제한된 예산으로 교통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한다.
3. 선택된 지역을 대표할 표본 추출시 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4. 본 연구로 얻어진 재료가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 연구 사업에 직접적인 이바지가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이상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는 동시 준도시와 농촌을 비교 검토시에 타 도(道)로부터 두 연구대상지역이 선출됐다는 다양성을 배제키 위해 준도시와 농촌은 우리나라 9개도(道) 중 1개도(道)만을 선택하여 두 연구대상지역을 그 안에서 선택했다.

본 연구에서 거주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군사기치 지역, 교육 또는 공공시설 및 산업 또는 공장지역을 제외한 주택지역을 말한다. 안성읍 거주지역은 실지 답사와 안성 읍사무소 관계인사의 의견을 참작 결정하고 고삼면은 거주지역으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서울지역 분류에 나타난 거주지역 상·중·하에서 각각 이를 대표할만한 3개동을 선출하였다.

서울시 거주지역 중 빈민지역(Slum Area)은 제외했는데 그 이유는 서울시 빈민지역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가정이 농촌에서 이주한 이들로 구성되어 생활 양식이 비록 서울에 거주해도 도시인을 대표할 수 없다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으로 선출된 연구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지역특성	선출된 연구대상지역
농촌 거주지역	고삼면(경기도 안성군)
준도시 "	안성읍(경기도 안성군)
대도시 " (상)	가회동(서울시 종로구)
" (중)	필운동(서울시 종로구)
" (하)	불광동(서울시 서대문구)

연구대상자는 연령이 17세부터 50세에 이르는 모든 여자로서 선택된 연구대상지역의 표집(標集)된 가구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 중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거나, 현지조사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상 출타했거나 부재시 3개월이상 출타예정자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했다.

표본추출 단위는 표집된 가구에 1인 이상의 연구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극히 적을 것으로 가정하고 선출된 지역에 가구로 하였으며 가구 선출에 기반이 된 자료는 1969년도 12월말 현재로 등록된 주민등록부로 이장 또는 등장의 협조를 얻어 이종기록 또는 누락 등이 없도록 보강한 다음, 가구 리스트를 주소 순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표본가구 크기는 전술한 바 있던 예산상 제약을 참작 농촌지역 고삼면을 제외하고는 본 연구가 필요로 된다고 생각되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수로 정했고 그 수는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N = \frac{(t_1 + t_2)^2 pq}{\Delta^2}$$

여기서  $t_1 = 2$ (5% Probability of type I error)

$t_2 = 1.3$ (10% Probability of type II error)

$P = 50\%$

$\Delta = 10\%$ —tolerable error

산출된 표본 가구수는 약 550이었으나 이등, 면접불능 혹 접견실패, 거절 또는 연구대상자가 추출된 가구에 없을 경우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가구수 보다 많이 뽑기로 정했다. 선택된 3개지역 비교연구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지역마다 같은 크기의 표본 가구를 추출하였다.

추후조사 대상자는 면접이 끝난 본 조사대상자의 10%로 하였다. 표본추출방법은 계통적 단순 무작위표집추출(Systematic simple random sampling)에 의하였으며 무작위로 시작하여 적정주기를 이미 작성한 가

**Table. 2-1** Some Details Concerning Sampling

	Seoul	Ansung	Kosam	Total
Total number of households	961,491*	4,098**	697**	966,286
Total number of households in Dongs selected for sampling	3,329*	1,889**	697**	5,905
Total number of households drawn in sample	739	746	690	2,175

\* Seoul statistical yearbook, 10th ed.,197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nsung Gun Statistical yearbook, 10th ed., 1970, Ansung Gun Government.

구 리스트에 적용하였다.

추출된 표본의 크기는 서울이 739 가구, 안성 746가구, 고삼면이 690가구이다.(표 2.1 참조)

면접자는 사회조사나 면접에 경험이 있는 사회학이나 간호학을 학문배경으로 가진 15명으로 구성되었고, 이 중 5명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이었다.

연구책임자 외에 3명의 감독자로 하여금 면접자들의 일을 지도 감독하게 하였는데 이 감독자들은 적어도 3년 내지 5년의 일 경험을 갖고 있는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었다.

면접자훈련은 상기 연구소의 협조를 얻어 4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훈련 내용으로는 하루반 낮은 현장면접조사 특히 본 조사와 관련하여 교실 강의가 있었고 질문지의 각부분 설명이 끝난 후 만나질은 면접에 관한 Demonstration 및 role play에 이어 면접자가자가 서로를 면접해 보는 경험을 가진 후 삼일째 되는 날은 도시로서는 연구소 인접지역, 농촌로서는 앞으로 면접실시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선택, 면접자 일인이 2~3가구씩 방문, 가구에 대한 재료를 얻은 후 면접대상자를 실제 면접경험을 갖게 하였다. 나흘째는 실제면접 경험을 위하여 질문지와 면접운영에 대한 구름 및 전체토의를 하고 이 결과를 통해 미비 또는 혼돈을 초래했던 점을 정리하였다.

현장면접조사는 본 조사 및 추후조사를 1970년도 여름 두달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추후조사는 본 조사가 끝난 후 10~15일 이내에 실시함으로써 시간경과로 인

해 가져올 수 있는 참변화를 배제하였다.

현장면접에 앞서 연구책임자와 감독자 일원은 한 "팀"이 되어 조사지역 관할 정부기관으로 군, 읍, 민사무소와 보건소를 예방하여 조사 목적을 설명하고 조력을 부탁하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면접자로 하여금 연구목적과 면접자를 소개한 공식서한을 면접 방문시 지참하도록 하였고 이 서한을 면접실시일에 앞서 추출된 가구에 우송하였다.

서울에 한해서는 라디오와 T.V.공지사항으로 해당지역에 면접자 방문이 며칠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 면접에 쉽게 호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

연구책임자와 감독자 일원으로 구성된 "팀"은 조사지역을 면접실시일 하루 앞서 일차 방문하고 자연부락이나 반의 위치를 Sketch하여 지도를 마련하였으며 이 지도를 이용하여 면접 조사 일자 할당 및 배차시간 계획에 효율있는 운영을 도모했다.

면접기간동안 감독자는 면접자들과 긴밀한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안성군 현지 조사시는 조사본부를 안성 읍에 두고 서울시 조사시는 조사본부를 연세대학교 인구 및 가족계획연구소에 두었다.

일과가 끝난 후 저녁마다 낮에 시행한 면접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접자와 감독자사이 구름 또는 개인 모임이 있었고 잘못이나 누락된 사항을 검토하여 면접자로 하여금 다시 면접토록 하였다.

응답율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추출된 가구의 가구원 조사로 이는 면접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Table. 2.2** Number of Households Drawn as Sample Households, Number and Percent of Household Interviews Completed, Number of Eligible Women in Households with Interviews Completed, and Number and Percent of Eligible Women's Interviews Completed, by Study Areas

	Seoul		Ansung		Kosam		Total	
	N	%	N	%	N	%	N	%
Households drawn in sample	739	(100.0)	746	(100.0)	690	(100.0)	2,175	(100.0)
Household interviews completed	583	( 78.9)	567	( 76.0)	651	( 94.3)	1,801	( 82.8)
Eligible women in households with interviews completed	738	(100.0)	601	(100.0)	643	(100.0)	1,982	(100.0)
Eligible women's interviews completed	643	( 87.1)	551	( 91.7)	597	( 92.8)	1,791	( 90.4)

Note: Among the household interviews completed, there 213 households which had no eligible women for this study(97 for Kosam, 76 for Ansung, and 40 for Seoul).

가구원 면접조사 완료결과를 보면(표 2.2 참조) 그 응답율이 82%이고 가구원조사에서 발굴된 면접대상자 면접 완료율은 90.4%로 국제적 기준으로 보아 양호하다고 보겠다.<sup>18</sup>

일반적으로 3개지역이 다 좋은 응답율을 보였으나 표 2.2에 나타난 것 같이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 좋은 응답을 얻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도시일수록 면접이 어렵다는 사실 이외에 본 연구의 설계가 농촌 고삼은 전가구 전원 조사하기로 한데에 기인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전가구 전원 조사방법이 누락도 적으며 좋은 반응율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 기 때문이다.

면접을 완료치 못한 이유를 보면 가구원조사에서는 서울과 고삼면에서는 조사시 부재가 으뜸가는 이유이고 안성읍에서는 이동이 그 이유중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 면접미필을 보면 조사시 부재가 3개연구지역에 걸쳐 가장 흔한 이유이었다.(참조 표2.3과 표 2.4)

Table 2.3 Reasons for Failure to Complete Household Interviews by Study Areas

Reasons	Seoul		Ansung		Kosam		Total	
	N	%	N	%	N	%	N	%
Moved out	25	( 3.4)	120	(16.1)	2	(0.3)	147	( 6.6)
Refusal	21	( 2.8)	2	( 0.3)	1	(0.1)	24	( 1.1)
Not able to contact	110	(14.9)	57	( 7.6)	36	(5.2)	201	( 9.0)
Total	156	(21.1)	179	(23.8)	39	(5.6)	74	(16.8)
Total number of households drawn as sample	739		746		690		2,175	

Note: Figure in parenthesis is(N/Total number of households drawn for samples in each study area)100.

Table 2.4 Reasons for Eligible Women's Interviews Being Not Completed When Household Interviews Were Completed by Marital Status and Study Areas

Study Area	Total Number of Eligible Women	Total		Not Able to be Interviewed*		Refusal		Not Able to Contact		
		N	%	N	%	N	%	N	%	
Ever Married										
Seoul	498	42	100.0(8.4)	18	42.8(3.6)	2	4.8(0.4)	22	52.4( 4.4)	
Ansung	469	23	100.0(4.9)	6	26.1(1.3)	3	13.0(0.6)	14	60.9( 3.0)	
Kosam	519	27	100.0(5.2)	10	37.0(1.9)	2	7.4(0.4)	15	55.6( 2.9)	
Total	1,486	92	100.0(6.2)	34	37.0(2.3)	7	7.6(0.5)	51	55.4( 3.4)	
Never Married										
Seoul	240	53	100.0(22.0)	3	5.6(1.2)	2	3.7(0.8)	48	90.7(19.9)	
Ansung	132	27	100.0(20.4)	2	7.4(1.5)	2	7.4(1.5)	23	85.2(17.4)	
Kosam	124	19	100.0(15.3)	3	15.7(2.4)	1	5.3(0.8)	15	79.0(12.1)	
Total	496	99	100.0(19.9)	8	8.1(1.6)	5	5.1(1.0)	86	86.9(17.3)	
Total										
Seoul	738	95	100.0(12.8)	21	22.1(2.8)	4	4.2(0.5)	70	73.7( 9.5)	
Ansung	601	50	100.0( 8.3)	8	16.0(1.3)	5	10.0(0.8)	37	74.0(12.3)	
Kosam	643	46	100.0(17.1)	13	28.2(2.0)	3	6.5(0.5)	30	65.3( 4.7)	
Total	1,982	191	100.0( 9.6)	42	21.9(2.1)	12	6.3(0.6)	137	71.8( 6.9)	

\* Not able to be interviewed included persons sick, with difficult family affairs, mentally retarded, emotionally disturbed, or physically handicapped such as deaf and dumb.

Note: Figure in parenthesis is(N/Total number of eligible women in the household interviews completed). 100.

면접을 거절한 율은 가구원조사에서 1.1%, 면접대상자 가운데서는 0.6%에 불과했다. 면접거절율은 Nye<sup>19</sup> 에 의하면 개인이나 가정의 사사로운 면을 다룬 연구에서는 약 15%가량이 되리라고 예측하였음에 비

해 본 연구에서는 겨우 0.6 내지 1.1%에 불과하였음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만큼 소수의 거절이었음을 시사한다.(참조 표 2.5)

면접을 완료치 못한 율을 통털어 볼 때 력 적게 보

**Table. 2.5 Number of Eligible Women Among Interviewed Households and Interviews Completed by Marital Status and Study Areas**

Study Area	Total			Ever Married			Never Married		
	(1)	(2)	(2)/(1)	(1)	(2)	(2)/(1)	(1)	(2)	(2)/(1)
	Eligible (N)	Interviewed (N)	(%)	Eligible (N)	Interviewed (N)	(%)	Eligible (N)	Interviewed (N)	(%)
Seoul	738	643	87.1	498	456	91.6	240	187	77.9
Ansung	601	551	91.7	469	442	94.2	132	109	82.6
Kosam	643	597	92.8	519	492	94.8	124	105	84.7
Total	1,982	1,791	90.4	1,486	1,390	93.5	496	401	80.8

이나 이들 응답자의 결혼상태로 나누어 보면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혼인 여성에서 면접완료율은 80.8%에 지나지 않는가 하면, 기혼 여성에서는 93.5%의 높은율을 보이고 있다. 즉 미혼여성은 대부분이 젊고 젊지않은 미혼여성은 활동을 하거나 또 젊은 미혼여성은 학업중임을 고려 면접실시를 늦게만 해 가지고서는 좋은 면접율을 거두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

대체적으로 본 조사 면접에 비해 후후 조사 면접완료율은 저조한 형편으로 80.3%를 보였고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미혼여성에서 그 저조함이 두드러졌다.

본 조사보다 면접응답율이 저조함은 이차면접에 대한 반발적 거절보다는 시간 및 예산의 불충분으로 인해 본 조사처럼 면접완료를 기하기 위해 이러한 방문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본다. 면접완료율 및 면접완료치 못한 이유는 표 3.1과 같다.

**Table 3.1 Selection and Performance of Reinterview**

**A. Number of Original Interviews and Number and Percent Selected for Reinterview by Marital Status and Study Area**

Study Area	Total			Married			Unmarried		
	Original Interview	Reinterview	%	Original Interview	Reinterview	%	Original Interview	Reinterview	%
Seoul	643	101	15.7	456	72	15.8	187	29	15.5
Ansung	551	88	15.9	442	70	15.8	109	18	16.5
Kosam	597	90	15.1	492	74	15.0	105	16	15.2
Total	1,791	279	15.6	1,390	216	15.5	401	63	15.7

**B. Number Selected for Reinterview and Number and Percent of Reinterviews by Marital Status and Study Area**

Study Area	Total			Ever Married			Never Married		
	Sample Selected	Interview Completed	%	Sample Selected	Interview Completed	%	Sample Selected	Interview Completed	%
Seoul	101	72	71.3	72	62	91.6	29	10	34.4
Ansung	88	69	78.4	70	56	80.0	18	13	78.2
Kosam	99	79	87.8	74	67	90.5	16	12	75.0
Total	279	220	80.3	216	185	85.6	63	35	55.5

재료처리 준비작업으로 면접내용을 질의응답된대로 직접 분석 검토할 수 없으므로 인해 면접내용을 전자 계산기 등 기계적 처리가 가능하게 부호화하였다.

부호화작업을 위한 임시직원을 채용 훈련후 마련된 부호화 지침서에 따라 부호화하게 하였으며 부호화시 범할 오류를 최대한으로 방지키 위하여 질문지를 다른 사람에 의해 두번 부호화하여 제삼자가 비교 검토한후 저지른 잘못을 다시 검토 정정케하였다.

부호화시 감독자가 늘 함께 있어 질의응답케 하고 부호화하는 작업에 의문이 있을시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하게하여 부호화에 일률성을 기하였다.

전 244,563에 달하는 “응답자-항목”중 약 1% 정도의 기록 오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각 응답자에 해당하는 부호화된 면접내용을 매 응답자당 3매의 IBM카드에 “펀치”하고 전자계산기로 분석하기 위해 전자테이에 옮겼고, 가구원에 관한 자료는 가구일련번호 순서로 IBM Card를 작성하여 지역별로 검토할 수 있게 하였고, 후후 조사내용은 본 조사시와 같이 각각 응답자에 해당하는 3매의 IBM가이드에 실려 다시 전송한 테이에 옮겨 미국 Johns Ho-

pkins대학교 보건대학원 IBM 360 Syst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제 4 장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도

### I. 자료의 신뢰도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완벽한 것은 없다.

외국 특히 미국 문헌을 검토해 보아도 신뢰도를 측정하여 발표한 문헌이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신뢰도 측정에 사용한 척도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척도를 창안 사용하여 한척도가 미급했던 면을 알아 보아 서로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한 척도는 (+표는 질문을 한개 이상을 묶어 붙여 씀)

- 1) 개별 비밀치도
- 2) 집합 비밀치도
- 3) 평균치의 절대차
- 4) 변동의 절대크기
- 5) 변동의 비례크기

위에 사용된 척도와 산출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기술할 수 있다.

1) 개별비밀치도 : 한 질문을 두번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그 질문에 같은 응답을 하지 않은 응답자의 비율을 말한다.

$$\frac{D}{P} \cdot 100 \text{ or } 100[\sum(D_j/P_j)]/N$$

여기서 P=총응답자수

D=두차례 면접시 같은 질문에 같은 항(또는 응답)을 답변하지 않은 응답자수

N=질문수

j=j제 질문

2) 집합비밀치도 : 한 질문을 두차례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그 질문에 같은 응답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질문에 부치고 다만 그 특정항에 응답한 응답자 한계 분포(Marginal distribution) 차이의 절대치 도합의 백분비율을 말한다.

$$\frac{\sum |O_i - R_i|}{2pi} \cdot 100 \text{ or } 100 \left[ \sum_{j=1}^N \left( \frac{|O_i - R_i|}{2pi} \right) \right]_j / N$$

여기서 O<sub>i</sub>=본 조사시 한 질문의 i제 항을 답변한 응답자수

R<sub>i</sub>=추후조사시 그 질문의 i제 항을 답변한 응답자수

i=질문의 i제 항

P=총응답자수

N=질문수

j=j제 질문

3) 평균치의 절대차 : 한 질문을 두차례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자기 갖는 그 질문의 두 평균치 사이의 절대차를 말한다.

$$\left| X^{\circ}O^{\circ} - X^{\circ}R^{\circ} \right| \text{ or } \sum_{j=1}^N \left| X^{\circ}O^{\circ}j - X^{\circ}R^{\circ}j \right| / N$$

여기서 X<sup>o</sup>O<sup>o</sup>=본조사시 한 질문이 갖는 평균치

X<sup>o</sup>R<sup>o</sup>=추후조사시 그 질문이 갖는 평균치

(평균치 산출은 전통적 통계적 방법을 사용함)

X<sup>o</sup>O<sup>o</sup>j=본조사시 j제 질문이 갖는 평균치

X<sup>o</sup>R<sup>o</sup>j=추후조사시 j제 질문이 갖는 평균치

N=질문수

j=j제 질문

4) 변동의 절대크기 : 한 질문을 두차례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가감의 방향을 무시한 본조사시 응답이 추후조사시 변한 정도를 말한다.

$$\sum_{p=1}^n \left| i^{\circ}O^{\circ} - i^{\circ}R^{\circ} \right| / P \text{ or}$$

$$\sum_{j=1}^N \left( \sum_{P=1}^n \left| i^{\circ}O^{\circ} - i^{\circ}R^{\circ} \right| / P \right)_j / N$$

여기서 i<sup>o</sup>O<sup>o</sup>=본조사시 응답항의 항간의 수적 위치

i<sup>o</sup>R<sup>o</sup>=추후조사시 응답항의 항간의 수적 위치

P=응답자수

N=질문수

j=j제 질문

5) 변동의 비례크기 : 한 질문을 두차례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산출한 변동의 절대크기를 그 질문이 갖는 관찰된 최고 항목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sum_{P=1}^n \frac{|i^{\circ}O^{\circ} - i^{\circ}R^{\circ}| / P}{S} \text{ or}$$

$$\sum_{j=1}^N \left( \sum_{P=1}^n \frac{|i^{\circ}O^{\circ} - i^{\circ}R^{\circ}| / P}{S} \right)_j / N$$

여기서 i<sup>o</sup>O<sup>o</sup>=본 조사시 응답항의 항간수적 위치

i<sup>o</sup>R<sup>o</sup>=추후조사시 응답항의 항간수적 위치

P=응답자수

N=질문수

j=j제 질문

S=관찰된 최고 항목수

질문의 유형은 네가지(A,B,C & D)로 대분하고 각 유형내에 특성에 따라 다시 세분해 보았다. 그 유형과 특성은 아래와 같다.

A형 : 1) 배경에 관한 질문군 2) 결혼 및 결혼년령에 관한 질문군 3) 출산력에 관한 질문군

4) 가족계획에 관한 질문군

B형 : 1) 태도에 속한 질문군 2) 지식에 속한 질문군 3) 행위에 속한 질문군

C형 : 1) 수량화만 가능한 질문군

2) 제곱화만 가능한 질문군

3) 수량화도 제곱화도 불가능한 질문군

D형 : 1) 응답자에 관계된 질문군

2) 응답자의 가족에 관계된 질문군

A. 개별 비일치도나 집합 비일치도는 한 질문을 두 차례 질의시 응답변응을 한 응답자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으로 이들이 의미하는 바를 간추려 보던

1) 일반적으로 개별 비일치도가 집합 비일치도보다 모든 질문에서 높다. 평균개별 비일치도는 30.45로서 1.00에서 82.14의 범위, 19.10의 표준편차를 갖는 반면에 집합비일치도는 평균이 7.58, 1.08에서 32.88의 범위와 3.62의 표준편차를 보였다.

2) 유형 A의 특성에 따른 분석을 보면 개별 비일치도가 예상과는 달리 출산력에 관한 질문군이 평균 16.77 (표준 오차 0.42)로 제일 신뢰도가 높았는데 집합 비일치도에 있어서도 평균 4.10으로 (표준오차 1.19) 같은 현상을 나타냈다. 제일 신뢰도가 낮은 질문군은 개별 비일치도로는 결혼 및 결혼년령에 관한 질문군 (평균 55.19)이었고 집합비일치도에서는 배경에 관한 질문군(12.43)이었다.

3) 유형 B의 특성에 의하면 태도에 속하는 질문군이 평균신뢰도가 개별 비일치도로 보아 52.32에 비해 실제에 속하는 질문군은 18.52로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다. 집합 비일치도는 같은 경향을(태도군=7.98, 실제군=7.36)보였으나, 개별 비일치도에서 보는바와 같은 격차는 없었다.

4) 유형 C의 특성에 의하면 수량 또는 제곱화할 수 없는 질문군이 다소 높은 비일치도 평균 개별비일치도(48.60) 집합비일치도 7.86을 보였으며 수량화할 수 있거나 제곱화했던 질문군에서는 거의 유사한 비일치도를 보였다. (수량화군→개별비일치도=24.31, 집합비일치도=5.62; 제곱화군→개별비일치도=24.01, 집합비일치도=5.68)

5) 유형 D의 특성에 의하면 응답자에게 관련된 질문군이 실제로 다소 신뢰도가 높으나 응답자가족에 관련된 질문과 비교에 큰 격차는 두개의 척도(개별 비일치도 및 집합 비일치도)에서 볼 수 없었다.

B. 변동의 절대크기, 비례크기 및 평균치의 절대차는 두차례 면접시 같은 응답을 주지 않은 응답자들이 같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변동했으면, 어느 정도로 응답이 변동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1) 변동의 절대크기와 비례크기

일반적으로 변동했던 응답자가 많이 있었음에 비해 변동의 절대크기와 비례크기로 보아 크게 변하지 않음이 밝혀졌다. 대부분이 평균 두 단위(인접항)이하로 변동하였고 두 단위 이상 변한 예는 50개 질문에서 10개에 지나지 않았으며, 변동가능확률이 질문의 항이 많을수록 많을 것을 고려해 변동을 항단위당 비교할 수 있도록 된 변동의 비례크기로 보면 한 질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한항 이상 변동치 않았다.

2) 유형 A의 특성에 따른 변동의 절대크기로 보면 가족계획에 관한 질문이 큰 변동(평균변동크기=3.15)을 보였고 그 다음은 배경에 관한 질문군(2.17)이었으나 변동의 절대비례크기로 보면 출산력에 관한 질문이(0.174) 가장 크게 변한 것 같으며 그 다음은 결혼 및 결혼년령에 관한 질문군(0.161)이었다.

3) 유형 B의 특성으로 보면 변동의 절대크기는 지식에 속하는 질문군에서 가장 높았고(4.53) 다음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행위에 속하는 질문군이 태도에 속하는 질문군보다 다소 높아 보였으나 큰 격차는 아니며 변동의 비례크기로 보면 역시 지식이 높은 비신뢰도를 보이고 태도에 속하는 질문군이 행위에 관한 질문군보다 높은 비신뢰도를 나타냈다.

4) 유형 C의 특성에 의하면 수량화된 질문군이 제곱화한 질문군보다 변동의 절대크기가 낮은 것으로 보이나, 변동의 비례크기로 보면 별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5) 유형 D의 특성에 의하면 응답자에게 관련된 질문군이 두척도보다 다소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으나 큰 격차는 없었다.

6) 두 평균치의 절대차를 보면 비록 응답자들이 두차례 다른 응답을 제공한 수가 많아도 별차가 없음이 밝혀졌다. 거의 전부 두 평균치의 절대차가 0에 가깝고, 그 중에는 평균치의 절대차를 발견할 수 없는 질문도 몇개 있었다.

특기할 것은 이런 질문들이 인공유산 경험회수와 가족계획 여하에 관한 것이었다. 따라서 평균치가 연구결과 발표의 수단으로 쓰여지던 두개의 data set 중 어느 data set를 사용해도 결론 짓는데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아나 평균치 외에 분석을 개인치에 두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를 산출한다고 할때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말해 주고 있다.

### C. 변동경향

일차 질의했던 내용을 이차 질의했을 때 그 내용이 달라졌다면 어느 일정한 방향이 있었나를 알아보는 것이다.

일차 면접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응답자에게는 질의되었던 사항에 대해 재검토해 볼 계기가 되어 새로운



본결을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아직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나 사실에 면접으로 인해 접하게 되어 교육이 필요로 새로운 답변을 이차 질문시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변동경향에 일정한 방향이 있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해 보았다.

한 질문을 두차례 다른 시기에 면접했을 때 각기 갖는 그 질문의 두 평균치의 차가 갖는 방향을 본 연구자가 현대 또는 도시생활 사고양식에 가까운 쪽으로 변동했을 때 이를 “+” 변동경향, 그 반대방향은 “-”, 아무 변동이 없을 때는 “0-”로 주어진 값을 말한다. 몇 개의 질문을 함께 다루었을 경우 Sign test라는 통계적 방법에 의해 변동경향을 결정했다.

변동경향 산출시 결과적으로 수량화나 계급화 할 수 없었던 질문은 제외하였고, 질문의 유형의 특성을 묶어 그 변동경향을 통계적 방법으로 검토 결정할시 변동이 없는 질문은 불가피하게 포함되지 않았다.

1) 변동경향으로 47개 질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은 일정한 방향을 보였는데 즉 현대 또 도시화하는 경향 (N=47 “-”=17, P < .05)이었다.

2) 유형 A의 특성으로 보면 질문이 응답자 배경군 (N=14 “-”=7), 결혼 (N=10 “-”=4), 출산력 (N=8 “-”=4), 가족계획 (N=5, “-”=2)으로 출산력에 속하는 질문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일정 경향을 보았다.

3) 유형 B의 특성에 의하면 태도에 속하는 질문군 (N=17 “+”=14)에 있어서는 일정경향이 있어 보이고 행위에 속하는 질문군 (N=30 “+”=16)에서 이런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4) 유형 C의 특성으로 보면 수량화할 수 있던 질문군에서 일정경향으로 변동함을 (N=28, “+”=22) 볼 수 있었으나 고층화했던 질문군 (N=19 “+”=11)에서는 이 경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유형 D에 의한 분석은 질문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알기에는 소수이므로 검토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질문의 속성이 태도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수량화할 수 있는 질문군에서 이차 면접시 일정방향(본 연구에서는 현대화)으로 변동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hi^2$  test를 적용했을시 Sign test에서 보았던 것 같은 통계적 유의성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인해 변동경향은 질문의 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 II. 자료의 정확도

자료의 신뢰도에 이어 자료의 정확도 역시 학자간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논쟁이 되고 있는 질항중 본 연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결혼 연령이라는 질문을 예로 택하여 연구코져 한다. 학자간에서

이상결혼 연령이나 또는 이상자녀수에 대한 회의가 있다. 부인들이 정녕 이런 관념 갖고 있느냐가 회의를 일으키는 초점이 되며, 이미 고정된 이런 관념이 부인들간에 결여되기에 이상 결혼연령이나 이상 자녀수필질의 당했을 때에 부인이 주는 응답은 부인이 결혼한 연령이나 현존 자녀수일 것이라는 설이다. 왜냐하면 부인이 알게 또 모르게 자기가 과거에 행한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는 두가지 시점과 관계된 이상 결혼연령과 결혼연령이 있으며 이들간의 관계를 알기 위해 세가지 다른 통계적 처리방법을 사용했다.

1. 이상 결혼연령과 결혼연령의 평균치 비교
  2. 이상결혼 연령과 결혼연령 응답시 같은 연령을 제시한 응답자 비율
  3. 이상 결혼연령과 결혼연령의 대응성 상관계수
- 주어진 재료로 이상결혼연령의 진정한 정확도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본연구에서 밝혀 보려는 정확도란 전술한 바와 같은 이상 결혼연령이라는 질문이 결혼연령이 아니더라는 것만 파악해 보려는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바에 의하면 1) 3개 연구지역을 통합하여 보면 실제 결혼평균연령 (22.7)이 결혼전 이상적 평균결혼연령 (23.4)과 다르며, 결혼후 평균 이상적 결혼연령 (24.1)과도 다르다.

2) 결혼전 이상결혼연령과 결혼연령이 같은 응답자 수가 전응답자수의 약 24% 정도이며, 결혼후 이상결혼연령과 결혼연령이 같은 응답자수는 약 10%에 지나지 않으며, 이상결혼연령이 결혼전후가 같은 응답자는 약 40%이었다.

3) 대응상관계수 테스트로 보면 이상결혼연령(결혼전, 또는 후 각각)과 결혼연령이 본포가 대응적으로 같으면 이상결혼연령이 결국은 결혼연령이라는 가설을 모두 부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상결혼연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곧 실제 결혼연령이라는 학자간의 회의적 설은 한국 부인에 있어서는 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상결혼연령을 질문했을 때 부인들이 갖고 있는 이상결혼연령을 답변으로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고찰 및 결론

본 연구는 결혼 및 결혼연령에 대한 태도, 지식 및 실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초혼연령과 출산

덕을 진정하는 여러가지 상관요인의 개인 또는 집합적  
능력의 고찰을 3개의 선택된 지역에서 검토하고 비교  
고찰하였다.

분석연구한 결과를 총괄해 보면

1. 3개의 선택된 지역의 연구대상자가 여러가지 사  
회경제 인구학적 또는 대외 접촉에 있어 같은 점보다  
는 다른점이 많았으며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자각 지  
닌 3개의 연구지역이라 할 수 있다.

2. 자료의 신뢰도는 여러가지 척도로 검토해 본 결  
과 반복도는 비교적 낮았으나 실제 응답의 질의 변화  
는 경악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자료축소 방법에 따라  
또 질문의 성격에 따라 다른 신뢰도는 볼 수 있었고  
경우에 있어서는 별차를 발견치 못했다.

3.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과 결혼년령에 대한 태도는  
실제와는 달리 많이 현대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전통  
적 관습과 서구적인 관습의 중간지점의 중용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사회 또 가족위주로 생각하는 경향보다  
자아의 주관과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경향이 결혼의  
어느쪽면에 대한 태도에서도 대체로 짙게 나타났다.

4. 우리나라 여성은 법적 결혼년령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약했다.

5. 대체로 결혼은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면에서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간에 성립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이 사회 경제적면이란 교육, 부친의 직업, 경제, 결혼전  
거주지와 종교이고 결혼상대자의 인구학적인 면은 별  
로 고려치 않음을 보았다.

6. 우리나라 여성의 태도와는 달리 아직도 중매 결  
혼이 태반이 넘으며 대도시 서울에서도 약 43.8%의  
부인이 중매 결혼 즉 부모가 배필을 선정해 주었다.

7.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지식, 또는  
실체가 여성의 교육이 높을 수록, 년령이 젊을 수록, 미  
혼일수록, 도시 거주 일수록 대체로 전통적 관습에서  
떠나 서구화 또는 현대화 하고 있음을 나타 냈다.

8. 초혼년령은 근 50년동안 차츰 높아져 오는 경향  
을 보였는데 급속한 증가는 1945년도 인것 같고 이와  
같이 젊은 년령층의 미혼율이 함께 높아지고 있었다.

도시-농촌차이가 오랜동안 초혼 년령에서 찾아볼수  
있었으나 근자에 와서 큰 차이가 없게 되었고

9. 이상 결혼년령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었다가 본  
조사년도 1970년도에 이르러서는 농촌-도시차 혹은  
년령차 또는 미혼-기혼차도 찾아 볼 수 없이 모두 25  
-26세를 이상 결혼 년령이라고 했다.

10. 초혼년령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선택된 여러가  
지 요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것을 여성의 교  
육 수준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초혼년령이 높았다.

응답자의 결혼전 사회, 경제, 인구학적 또는 기타 가  
능요인중 응답자의 초혼년령과 별 관계를 나타나지 못  
한 것으로는 1) 종교, 2) 부친의 직업 3) 초경년령 이  
었다.

11. 결혼전 응답자 남편의 사회, 경제, 인구학적 요  
인중 응답자의 경우와 달리 3가지 요인만 유의한 관  
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1) 교육 (2) 결혼전 거주지,  
(3) 경제 수준이었다.

12. 조사당시 응답자의 배경으로 사회, 경제와 현대  
성에 관한 요인중, 교육과 거주제한만 상관관계를 가  
지고 있게 나타났다.

13. 따라서 초혼년령을 좌우하는 요인은 당사자 결  
혼당시 사회 경제적 요인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겠고 그중에도 교육이 초혼년령의 차를 설명한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14. 어느 선택된 요인군중 어느군에서도 40%이상  
초혼년령의 차를 설명하지 못했다.

15. 우리나라는 만혼이 출산력에 미칠수 있는 영향  
을 알기에 어렵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음을 알았다. (1) Common-Law 결혼형  
태는 우리나라 역사 문화상 용납되지 않으며 문제시  
되어오지 않았고, (2) 결혼전 임신이나 결혼의 임신을  
경험한 응답자가 소수였으며 (3) 만혼으로 인해 출산  
간격을 좁혀 임신을 자주하는 경향도 보이지 않았으며  
십대결혼한 응답자 가운데 다른나이에 결혼한 응답자  
에 비해 불임빈도가 높지도 않았다.

실은 불임부인을 이군에서 찾아 볼 수 없었고 Sub-  
fertility 현상도 없었다.

16. 출산력 상관 요인으로 보고 선택하여 사운한 요  
인중 초혼년령이 3가지 사용된 출산력 "인덱스" 각각  
의 Variance에 년령군 30-39세와 40-49세에서 구애  
되지 않고 가장 많이 이바지한 요인이며 반면에 가족  
계획은 20-29세에 있어서 출산력차를 가장 많이 설명  
할 수 있었다.

17. 13개의 선택 상관 요인이 어느 년령군에서도  
total variance의 40% 이상 설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고찰을 할 수 있  
었다.

(1) 젊은 년령군에서 미혼 비율이 높아져 왔고 초혼  
년령이 계속 상승되고 있으나 결혼을 단순히 늦추는 경  
향일뿐 독신자 군이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보아 우리나  
라는 앞으로도 독신자 군이 인구증가율을 감소 시킬  
정도로 증가 할 것 같지 않다.

이런 역사적 추세외에 이 고찰을 지지할 만한 자료  
를 본 조사에서 함께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응답자 이

인의 태도가 득신을 권고 하는 율이 극히 적었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연령이 적을수록 사랑을 근거로 하는 Romantic marriage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경향은 결혼을 하게 하는 다른 하나의 촉진제가 앞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2) 결혼연령 증가 경향도 지속적이지 못하고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본다.

Bayer가 말했듯이 이상 결혼연령이 즉 실제결혼 연령을 예측케 한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이상 결혼연령이 노소, 미혼-기혼, 또는 지역에 따라 다르없이 25-26세이며 1970년도 결혼한 응답자의 평균 결혼연령이 약 25세를 육박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한계점 도달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외에 교육 수준이 높고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층의 이상 결혼연령이 결혼전보다 결혼후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였고 이들이 앞으로 생활 형태를 좌우하는 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결혼연령이 수년후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설상 가상으로 본 연구의 발표되지 않은 자료에 의하면 17-34세 연령군에서 초혼연령이 가족계획 "인버스"와 Inverse relationship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임신의 위협이나 부담 때문에 만혼을 하려든 군에서 가족계획의 대두로 조혼을 할 수도 있게 됐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임신시기 또는 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Universal marriage의 조혼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3) 만혼과 높은 교육수준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나 여성이 직업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결혼할 것을 연기해가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보다 유리하기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것이 실정인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여성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연령도 계속 높아지리라 기대할 수 없다.

높은 교육 수준은 즉 서구적인 문화생활의 지혜의 접촉도가 높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만혼의 경향을 낳았다면 학교 교육밖에서도 이 지혜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이다.

(4) 따라서 종래에 있어 출산력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초혼연령이 계속하여 출산력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생각을 지지하는 좋은 자료로서는 본조사연구에서 이미 20-29세 연령군에서는 초혼연령 보다는 가족계획이 출산력의 차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력저하를 위하여는 어느 인구학적인 요인보다는 결혼내출산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요인들의 큰 역할이 기대되며 이요인 중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것이 가

족계획이라 하겠다.

따라서 가족계획 사업이나 개인의 가족계획 실시에 저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고 가족계획을 강화함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 REFERENCES

1. Yang, J.M.,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Population Dynamics: International Action and Training Programs*, edited by Muramatsu and Harper,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Maryland, 1964, pp.78-79.
2. Koh, K.S., "The Fertility of Korean Women," 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Seoul, Korea, 1966.
3. United Nations, Demographic Yearbook, 1965.
4. Kim, T.I., et al.,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Population Control and Fertility Decline,"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972, p.33.
5. Ibid., p.14.
6. Blang, M., "Introducti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by Thomas R. Malthus, Richard D. Irwin, Inc., Homewood, Illinois, 1963, p. vi.
7. Leasure, W.J., "Malthus, Marriage, and Multiplica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ume XLI, Number 4, Part 1, October 1963, pp.419-435.
8.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Medical Bulletin, Volume 5, Number 1 February 1971.
9. Davis, K., "Population Policies: Will Current Programs Succeed?" *Science*, Volume 158, November 1967, pp.730-739.
10. Berelson, B., "Beyond Family Planning," *Studies in Family Planning*, Number 38, February 1969, pp.1-16, The Population Council, New York.
11. Orleans, L.A., "Propheteering: The Population of Communist China," *Current Scene, Development in Mainland China*, December 15, 1969, Volume VII, Number 24, pp.13-19.
12. Henry, L., "Some Comments on W.H. James' Article," *Population Studies*, XVIII, Number 2, 1961, pp.175-180.
13. Pomerat, G.R., "Fertility in Relation to Age

- at Time of Marriage," *Human Biology*. August 1936. pp.420-432.
14. Notestein, F.W., "Differential Age at Marriage According to Social Cla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ume XXXVII, July 1931, pp.22-48.
15. Sklar, J., "Childless Women in the United States, 1910-1969," read at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meeting in Toronto, April 1972.
16. Census of England and Wales (1911), XIII, Part II, lix.
17. Hajnal, J., "Age at Marriage and Proportions Marrying," *Population Studies*. 7, 1953, pp'11-136.
18. Nye, F. Ivan, "Field Research," in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edited by H. I. Christensen, Rand McNally and Company, Chicago, 1964, pp.261 and 264.
19. Ibid

= ABSTRACT =

## AGE AT MARRIAGE AND FERTILITY OF WOMEN IN THREE SELECTED AREAS IN KOREA, 1970

Mo Im Kim

This study is designed to meet the following objectives:

(1) To study attitude and behavior regarding marriage and age at marriage, (2) To learn correlates of age at marriage and to examine their relations, (3) To measure relative importance of the correlates of age at marriage, and (4) To study relations of age at marriage and family planning practice to fertility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as correlates of fertility.

The data are obtained by an independent cross-sectional survey in three study areas purposively selected to represent metropolitan, semiurban, rural population. The study population is confined to women age 17-50 as of survey.

The overall response rate is 90%. Reliability of data is measured by individual and aggregate inconsistency based upon a 15% subsample of the original interviews. The individual inconsistency (31%) is found to be high compared to the aggregate inconsistency (6%) for all 85 variables. However, the magnitude of differences between means is small, and the mean absolute shifts and proportional shifts are also small on the whole. In a word, respondents did not change their answers too extremely or radically.

The study populations of each study area are compared on some basic characteristics. It is found that the three study populations have more dissimilarities than similarities.

The findings on seven different attitudinal positions of women toward marriage indicate that there have been tremendous changes in all study areas from "traditional" attitudes which have been prevalent for a long time in Korean society to "liberalized" or "modernized" attitudes. An apparent tendency is that women generally take a position of a "golden mean" attitude by not preferring either extreme of marriage attitudes. Nevertheless, the young, single, educated, and urbanite appears more "liberalized."

There has been some increase in ideal age at marriage from 1958 to 1970 for both sexes. No age group, marital status, or study area differentials in ideal age at marriage are found, the average ideal age at marriage in every sub-group being 24-25.

Awareness of existing legal marriageable ages is low; only 4.4% are aware that "with parental permission: minimum age for males is 18 years and for females 16 years," and only 3.7% are aware that "without parental permission: 27 years for males and 23 years for females."

People in Korea tend to marry spouses who are in various social ways like themselves; the similarities include (a) education, occupational status of father, (c) economic status, (d) usual residence before marriage, and (e) religion.

Both singulate and actual mean ages at marriage in this study confirm the trend of rising age at marriage previously established by other independent studies. The urban-rural differential in age at marriage is observed, but the differential narrows down gradually from 1935 to 1970.

All socio-economic, demographic, and other variables pertaining to wife before and at first marriage, excluding (a) religion, (b) father's occupation, and (c) age of menarche, are correlated

with respondent's age at first marriage, whereas only three variables out of all socio-economic variables relating to husband before and at wife's first marriage, viz., (a) education, (b) usual residence, and (c) economic level of his old home, are correlated with respondent's age at marriage. Among socio-economic and modernity variables related to either husband or wife at the time of survey, only education and duration of residence are correlated with wife's age at first marriage.

Among the correlates of respondent's age at first marriage, education is in general the most important variable. However, it is found that wife's education is more important than husband's.

The combined effects of the correlates studied explain no more than about 40% of variance for any of the selected groups of variables.

Points which might counteract the effects of late marriage on fertility are not serious in Korea. For each of the correlates of the three fertility indices chosen for this study, namely, (a) number of living children, (b) number of live births, and (c) number of pregnancies, age at marriage is the major contributor to the variance in all age groups except the age group of 20-29 in which the index of family planning practice is the major contributor.

The proportion of variability in fertility indices accounted for by the correlates is never more than 40% of the total variance in any age group.

Based upon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it could be concluded that in the foreseeable future (a) celibate group will not be increased to a point that would slow down population growth rate in Korea, (b) age at marriage will not increase continually, (c) although education stands out as the major contributing variable which independently explains the variation in age at marriage, it seems probable that education may not be the major variable in the near future, and (d) despite the fact found by this study that age at marriage has been the major contributor to the variance of each of the fertility indices used, family planning practice will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reduction of fertility in the Korean society.

Therefore, factors interrupting practice of family planning must be eliminated, and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if further fertility reduction is needed.